■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23-332.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공거문초』해제

정해은*

1. 공거문이란?

공거문(公車文). 이 생소한 단어는 상소문을 뜻한다. 중국 한(漢) 대에 공거부(公車府)라는 관청이 있었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접수하고, 임금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맡았다. 공거문은 바로 이 공거부라는 관청이 담당한 업무에서 유래했다.

한국에서 '공거' 또는 '공거문'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다.『세종실록』에는 한(漢) 대에 조심성 없는 태자를 탄핵한 공거령(公車令)의 사례가 처음 등장한다. 그 뒤『성종실록』에 대사간 등의 차자에 "공거에 글을 올리고"라는 말이 나온다. 이때부터 공거는 상소를 접수하는 승정원 또는 상소문의 의미로 드문드문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7세기 후반 이후로 보이며, 숙종 연간에 '공거문'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조선시대에 공거 또는 공거문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이나『승정원일기』에는 '상소'나 '상서', '차자(箚子)' 등 우리가 잘 아는 용어를 더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오늘날 '공거'라는 단어가 서명에 들어있는 자료집들이 방대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공거문』,『공거록(公車錄)』,『공거문총(公車文叢)』,『공거회문(公車會文)』,『공거유선(公車類選)』,『공거유집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公車類集)』, 『공거유휘(公車類彙)』, 『공거유람(公車類覽)』, 『공거휘편(公車彙編)』 등 공거문 자료집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전한다.

1989년 최승희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공거문' 유형의 자료는 국내에만 총 67종 924책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28종 543책, 국립중앙도서관에 11종 146책, 연세대 도서관에 8종 10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4종 40책이 있다.

공거문 자료들은 해외에도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에 11종 55책이 있다. 일본 교토대학교 도서관에 5종 36책, 일본 동양문고에 2종 7책, 대만 국가도서관에 1종 1책,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1종 6책이 있다.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공거문초』를 소장한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에도 2종 3책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에 현전하는 공거문 유형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78종 979책이나 된다. 거의 1천 여 책에 달하는 셈이다.

이 자료집들에 수록된 글들은 대체적으로 영조 이후부터 1883년(고종 20)까지 상소·상서·차자 등이다. 편집은 연월일 순으로 이뤄졌다. 다른 한편으론 관서별·주제별·인물별 등으로 분류한 다음 그 안에서 다시 시기 순으로 편집한 책들도 적지 않다.

2. 편저자 사항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 『공거문초』도 수많은 공거문 자료집 중 하나다. 이 자료의 표지 이면에는 '임인중춘만취재등(壬寅仲春晩翠齋謄)'이라 쓰여 있다. '만취재'는 당호(堂號)로 보이므로 "임인년 2월에 만취재에서 베낌"이라는 의미다. 이 자료의 마지막에 실린 상소문이 1836년이므로 임인년은 1842년(헌종 8)으로 판단된다.

필사자는 내제(內題)가 있는 첫 면에 '운하(雲遐)'라 새긴 작은 도장을 찍어 본인을 나타냈으나, 현재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정조 대 이후로 상소문들을 모아 편집한 자료집들이 본격적으로 편찬되면서 민간으로도 확산되었으므로, 필

사자도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관심 있는 상소문들을 뽑아 필사했다고 보인다.


公車文抄
行副承旨臣國榮 上疏 己亥九月二十六日
臣之是日即出身而逢 殿下之日也即告身而辭 殿下之日
也去就進退之際自不覺抑塞遑迫恐尺篤廂名有未盡之言今
叙 獻納 臣身江外昌蒿地里隔嶺臣之愛 殿下恩於古更
有倫哉吳天罔極河海吳量伻慶例語臣不敢言而臣自受恩以
來感當一心惟在報效處境闌稽王命有令已多歲月矣要
其歸不過為婦寺之忠休戚之義而已毋以宗祐一念為臣不瞑
之恨耿耿在心如不欲生欲斧 慈教特下大諭朝廷請下賢門
畢竟庸還乃在臣家臣窃自惟念臣即男子身耳無以為 殿下
為後國而臣妹既入宮庶幸其孟蟲斷蒙行贊成 三殿之喜寵報
聖明之慶緣臣福薄臣妹又青年而夫亡臣自廠後心神不安憂
壬寅仲春晚翠齋謄
44729

『공거문초(公車文抄)』 첫 장. 표지 이면에 '임인중춘만취재등(壬寅仲春晚翠齋謄)'이라 쓰여 있다. 임인년 2월에 만취재에서 베꼈다는 뜻이다.

3. 구성 및 내용

『공거문초』는 1책 72장이며 필사본이다. 32건의 글이 필사되었으며, 마지막 장에 '공거문종(公車文終)'이라 적고 있어 이 한 책으로 필사를 완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목차나 서문이 없다. '공거문초'라는 내제에 이어 바로 여러 상소문들을 필사했다. 1779년(정조 3)의 행도승지 홍국영의 상소부터 1836년(헌종 2) 부사직 강시환 상소까지 상소·상서·차자를 비롯해 계사, 전교, 주본, 영(令), 의주(儀註), 치제문 등을 베꼈는데, 제목에 걸맞게 상소·상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글의 구성은 제목을 쓰고 날짜를 세주 형식으로 밝힌 다음에 내용을 적었다. 제목의 경우 상소·상서·차자 등은 '행도승지 홍국영 상소'처럼 정확하게 제목을 썼으나, 소계나 전교·영 등은 제목 없이 연월일만 기입했다. 그리고 상소·상서에서 답변을 함께 실은 곳은 홍국영 상소, 김종수 수차, 6도 유생

상소, 왕세자[효명세자] 상소뿐이다. 『공거문초』에 실린 글들을 순번을 붙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거문초(公車文抄)』 표지. 1책 72장, 1779년(정조 3)부터 1836년(헌종 2)까지 32건의 상소가 수록되었다.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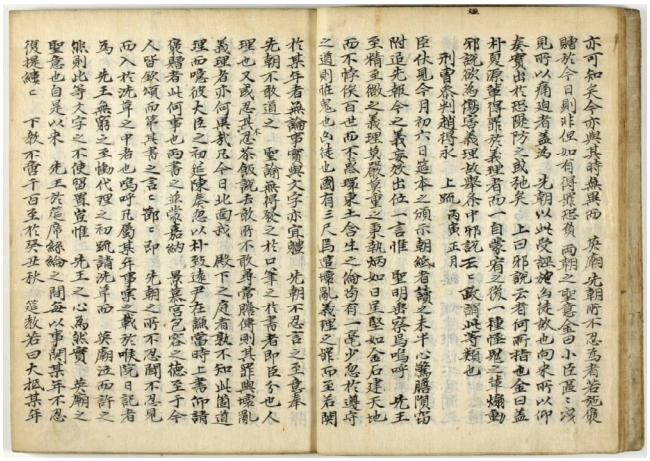
① 행도승지 홍국영(洪國榮) 상소 (1779년 9월 26일): 사직 상소이며, 사직을 허락한다는 비답이 함께 실렸다.

② 이조판서 김종수(金鍾秀) 수차(袖箚) (1780년 2월): 신하의 분의를 지키지 않고 권세를 부린 홍국영의 유배를 청하는 상소다.

③ 첨지 권유(權裕) 상소 (1794년 12월): 사관 정동준(鄭東浚)을 '귀근(貴近: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으로서 농간을 부린다는 이유로 탄핵한 상소다. 이 탄핵을 받은 정동준은 얼마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④ 1805년 12월 27일(우의정 김달순(金達淳) 입시시 소계): 상소는 아니다. 김달순이 국왕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이우·박하원·홍지섭 등에게 도배(島配)의 형벌을 시행하고, 박치원·윤재겸에게 시호와 벼슬을 추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이 문제를 두고 이듬해인 1806년 정월 초6일에 순조가 희정당에서 의정 서매수·한용구·김달순을 비롯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우·박하원 일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 박하원은 남인 계열의 시파이며, 윤재겸은 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⑤ 형조참판 조득영(趙得永) 상소 (1806년 정월): ④번과 연관이 있는 상소다. 조득영은 정월 초6일에 연석에서 벽파 박치원·윤재겸의 추증을 요청한 김달순에 대해 정조의 유지를 위배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탄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상소를 계기로 김달순은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공거문초(公車文抄)』 본문. 형조 참판 조득영이 1806년(순조 6) 정월에 올린 상소다.

⑥ 대사헌 조득영 상소 (1812년 11월 초9일): 척신 박종경의 비리를 논하는 상소다. 이 상소는『순조실록』에 1812년 11월 7일(병자)에 실렸는데, 실록에는 왕이 견삭(譴削)하라는 비답이 실려 있다.

⑦ 영돈녕 김조순(金祖淳) 상소 (1821년 3월): 1821년에 효의왕후가 죽자 건릉(정조 능)에 합장하기 위해 건릉의 이장을 건의하는 상소다.

⑧ 1822년 정월 21일 차대시 (영의정 김재찬(金載瓚) 소계): 차대 시 김재찬이 관리 임명의 신중, 탐관오리 처벌을 위한 어사 파견, 전곡 지출은 비변사에 보고한 후에 거행할 것 등 국왕의 시사(視事)에 대해 건의한 내용이다.

⑨ 6도 유생(9996인) 생원 김희용(金熙鏞) 등 상소 (1823년 7월 25일):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의 유생 9,996명이 관직 등용에서 서얼 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다.

⑩ 초토(草土) 신 이서구(李書九) 상소 (1825년 9월 27일): 이서구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소(遺疏)로, 어진 선비를 뽑아 세자를 보도(輔導)하며, 재용 절

약, 인재 등용 등을 건의했다.

⑪ 1827년 2월 초9일 (전교):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는 전교다.

⑫-⑭ 왕세자상소 (1827년 2월 초9일), 재소(2월 11일), 삼소비답: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어달라는 효명세자의 상소·재소 및 삼소에 대한 비답이다. 삼소의 경우 내용은 없고 비답만 있다.

⑮ 청정의주(聽政儀註) (1827년 2월 18일 청정): 대리청정을 위한 각종 의례 절목 10개를 실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대리청정의 정당은 중희당, 별당은 수강재로 정했다. 청정할 때에 앉는 방향은 서향으로 한다. 전지(傳旨)는 휘지(徽旨)라 하고, 계의윤(啓依允)은 '달의준(達依準)'으로, 계사(啓辭)는 '달사(達辭)'로, 장계(狀啓)는 '장달(狀達)'로, 계본(啓本)은 '신본(申本)'으로 부르게 했다.

⑯ 신사변무주본(辛巳辨誣奏本): 1821년(순조 21)에 『황조문헌통고(皇朝文獻通考)』에 김창집·이이명 등이 역모로 처형되었다는 기록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승문원의 변무 주본이다.

⑰ 치제조선국왕세자문(致祭朝鮮國王世子文):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죽자 청(淸)에서 정사를 보내 위로한 치제문이다.

⑱ 연안 유학 황윤중(黃允中) 상소 (1825년 4월): 알성시에 제출한 답안지이나 과거시험 체재가 아닌 상소의 형식을 띠었다. 시부(詩賦)로 사람을 뽑는 것, 사치, 백골징포, 환자(還上) 등 12가지 시폐 개혁안을 올렸다. 황윤중은 이 일로 충군되고, 글은 불태워졌다.

⑲ 장령 유영오(柳榮五) 상소 (1827년 3월): 평안감사 이희갑이 뇌물과 청탁을 받았다고 탄핵하는 상소다.

⑳ 대사간 임존상(任存常) 상서 (1827년 3월): 김조순 계열인 우의정 심상규의 교만과 사치를 탄핵한 상소다. 임존상은 이 상소를 올리고 나서 이조 참의에 특별 임명되었다가 다시 대사간에 이어 대사성으로 승진했다.

㉑ 1827년 3월 29일 영(令): 이 글의 끝에 세주로 '정언 장교근 상서'로 되어 있어 정언 장교근 상서에 대한 세자의 하령임을 알 수 있다. 조봉진이 전라감사에서 돌아와 순조에게 지역 폐단이 없다고 보고한 뒤에 세자에게 몇 가지 폐단을 써서 올리자, 부왕을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유배시키라는 영을 내렸다. 또 조봉진을 탄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입직한 홍문관 관료들을 모두 삭직시켰다.

㉒ 대사헌 박기수(朴綺壽) 상서: 효명세자에게 올린 일곱 가지의 개혁안이다. 입지(立志), 학문에 힘쓰기[勤學],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기[納忠直], 기강 진작[振紀綱], 절검 숭상[崇節儉], 하늘의 경계를 삼가기[謹天戒], 휼민[恤民隱]이다. 상서를 올린 날짜는 없지만,『순조실록』을 조사해보면 1828년(순조 28) 8월 6일(계사)이다.

㉓ 좌의정 이존수(李存秀) 상서 (1829년 6월 25일): 좌의정에 임명된 이존수가 세 번째 올린 사직 상소문이다.

㉔ 부호군 심영석(沈英錫) 상서 (1829년 7월 19일): 김조순의 7촌 조카인 호조판서 김교근과 그 아들 김병조의 탐학을 탄핵하는 상서문이다. 김교근은 뇌물 수수로, 김병조는 개경 유수로 있으면서 주전(鑄錢)을 빙자해 민에게 재물을 빼앗은 혐의다.

㉕ 부호군 신의학(愼宜學) 상서 (1829년 11월 17일): 효명세자에게 '오회연교(五晦筵敎)'를 상기시키면서 벽파를 옹호한 상서다. '오회연교'는 정조가 죽기 직전인 1800년(정조 24) 5월 말에 발표한 내용으로 임오의리를 천명하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의학은 이 상소를

올린 일로 효수되었다. 이 글의 끝에 세주로 “소조(小朝: 세자)께서 금위영에서 친국했으며, 계속해서 추국했다. 28일에 효수하고 적몰했다.”고 되어 있다.

㉖ 정언 신윤록(申允祿) 상소 (1830년 7월 29일): 효명세자 요절 뒤에 세자의 측근 인물인 김로(金鏴) 등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다. 김로는 김재찬의 조카이자 한용구의 사위로, 효명세자의 청정이 시작된 뒤 대사성, 병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로 중임된 인물이다.

㉗ 부사과 윤상도(尹尙度) 상소 (1830년 8월 초8일): 효명세자 요절 뒤에 호조판서 박종훈(朴宗薰), 전임 유수 신위(申緯), 어영대장 유상량(柳相亮)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다. 이 글의 끝에 세주로 “추자도 정배”라 되어 있다. 순조는 윤상도가 뒤에서 사주한 무리들의 선동으로 상소를 올렸다고 판단해서 윤상도를 추자도로 정배했다.

㉘ 부사과 김우명(金遇明) 상소 (1830년 8월 초10일): 전임 평안도 감사 김노경(金魯敬)이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다. 김노경은 효명세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효명세자 사후에 ‘네 명의 간신’으로 불린 사람 중 한 명이다.

㉙ 1830년 11월 12일 (대신 연명 차자에 대한 국왕 답변): 영의정 남공철·우의정 정만석이 김노경 등에 대한 삼사의 청을 윤허해달라고 올린 연명 차자에 대한 순조의 답변이다. 순조는 최근 여러 사람들을 성토하는 일이 모두 대리청정 이후의 사단(事端)인데, 조정의 안정을 바라는 본인 뜻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학수·김교근·김병조를 향리방축하라는 명을 내렸다.

㉚ 대제학 김조순 상소: 이 『공거문초』에는 김조순이 상소를 올린 시기가 없으나 『순조실록』에 1832년(순조 32) 2월 28일(을사)에 실려 있다. 2월 26일(계묘)에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되자 면직을 요청하는 상소

다.『공거문초』에는 비답을 수록하지 않았으나,『순조실록』에는 순조가 "요청한 대로 하라."는 비답을 내렸다.

㉛ 1834년 12월 16일 시원임대신·약방·내각 입시시 (대왕대비전 하교): 1834년 11월에 순조가 승하하고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비, 김조순의 딸)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하교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처음 내린 하교로 보인다. 백성을 애휼하고, 수령을 단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군국(軍國)의 큰일은 대신과 재상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㉜ 부사직 강시환(姜時煥) 상소 (1836년 2월 초5일):『공거문초』에 실린 상소문 중 가장 긴 상소문이다. "우리 자성전하께서 주야로 수렴청정하시며 부지런히 살피시고 염려"하시므로 하늘이 반드시 이 나라를 도울 것이라고 하면서, 성학 중시, 백성 긍휼, 기강 세우기, 재용 절약, 군정 다스리기, 과거시험 폐단 개혁 등 6개 조항을 건의했다. 강시환은 이 상소문을 올린 뒤에 상소문 중 '섭정'이라는 문구가 참람하다는 이유로 절도에 안치되었다.

4. 자료 가치

이 자료는 표지 이면에 '대판부립도서관 대정사년사월십구일(大阪府立圖書館 大正四年四月十九日)'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또 내용이 시작되는 첫 면에도 '대판부립도서관장서지인(大阪府立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이 도장들은 이 자료가 1915년에 일본 오사카 부립 도서관에 들어온 도서임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했듯이 현재 국내외에 소장된 1천 여 책에 달하는 공거문 자료집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서명들을 살펴보면, '초(抄)'라는 단어를 써서 편집한 책은 오직 이『공거문초』뿐이다. 그러므로 이『공거문초』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거문들에 비해 분량이 단출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공거문들이 편집, 필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에 공거문들을 모아 편찬을 시작한 사람은 국왕 정조였다. 정조는 『장차휘편(章箚彙編)』 60권과 『공거문총(公車文叢)』 200여 책을 편찬하고 직접 서문과 제(題)를 지었다. 『장차휘편』은 영조 재위 53년 동안 신료들이 올린 상소류를 뽑아 편집한 것이다. 『공거문총』은 정조가 본인 재위 기간 동안 올라온 상소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군신 모두 성찰하고 경계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편집한 공거문들은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거질로 남게 되었다.

이 『공거문초』는 시기별로 편집한 책으로, 여기에 실린 글들은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으며 『승정원일기』에도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공거문초』에 실린 각 글의 분량과 거의 유사할 만큼 전문이 거의 실려 있어 『공거문초』가 전문을 실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거문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순조 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효명세자의 대리청정과 관련된 내용이 17건(⑪-㉙ / ⑯과 ⑱은 제외)이나 되어서 순조 집권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주요 정치적 사건들과 정국 상황을 연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다만, 상소나 상서에 대한 비답이 함께 실리지 않아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쉽다. 비답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보충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개정판), 국립중앙도서관, 2011.

최승희, 「公車文 類의 소장상황과 그 사료가치」, 『한국문화』 제10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9, 393-422면.